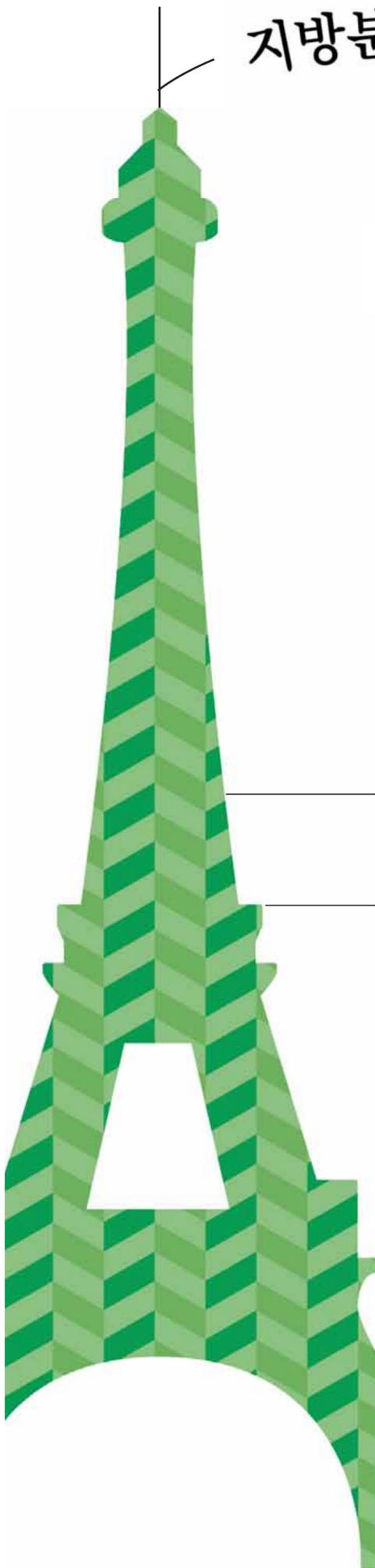


지방분권 30년... 유럽 제1의 테크노폴 우뚝



빛가람에너지밸리 성공전략 혁신도시를 혁신하다

9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테크노폴리스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문화 생활, 교통인프라, 교육 시스템, 산·학·연 등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등 수많은 요인이 있지만 수도권권의 성공적인 지방 분산 정책이 가장 커다란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인프라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 데파르트망, 시미자(SYMISA·지방 정부·상공회의소 협력기구)의 연합이 재원을 분담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 성공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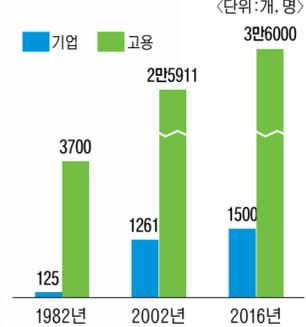
기업·교육연구기관 주체적 역할

세계적 기업·연구기관 창출·교육 혁신
고급인력 53%...연구개발 잠재력 높아
34년새 기업 12배·고용인원 10배 증가
1500곳 3만6천명...年 일자리 400개 1

인프라 역할 분담

지자체 도로 건설·학술기관 설립
중앙정부 초기 토지 구입 기여
'시미자' 연합 1억7천만유로 투자

■ 기업 유치·지역인재 고용 현황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지난 30년간 6억 유로 화 이상이 투자된 만큼 국가와 지방당국의 지원 없이는 건설이 불가능한 거대 사업이었다. 데파르트망이 2억6000만 유로화를 투자해 도로건설과 학술기관들을 설립했고, 중앙정부도 2억 유로화를 투자해 초기 토지 구입에 기여했다. 또 시미자(SYMISA)는 1억 7000만 유로화를 투자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모든 입주기업이나 기관은 시미자(SYMISA)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쳐 입주가 가능하며, 승인 기준은 기술, 무공해 그리고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했다. 단지 내의 모든 건물은 건폐율(평균 30%), 고도제한(단지 내 정상지역을 넘지 못함), 건축 형태 등 개발원칙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이처럼 촘촘한 사전 계획과 실현은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클러스터로 만든 원동력이 됐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지역인재 고용과 지역 개발 효과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1982년에 기업 125개 고용 3700명에서 2002년에 기업 1261개, 고용 2만5911명으로 성장했다. 이

어 2016년에 기업 1500개 고용 3만6000명으로 30여년 동안에 기업 수는 12배, 고용 수는 10배 증가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 일자리 중에서 고급인력이 53%를 차지할 정도로 고급인력이 집중되어 있고 연구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아메 데우스 사스(A-madeus SAS)와 같이 약 11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한 대기업과 750명의 종업원을 보유한 톰슨 말코니 소나(Thomson Marconi Sonar), 호니웰(Honeywell) 루센트 테크놀로지(Lucent Technologies), 프랑스 오라클(Oracle), 퀄컴(Qualcomm)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했다.

이 밖에도 소피아 앙티폴리스에는 국립정보기술자동화연구원(INRIA), 국립과학연구원(CNRS) 등 대규모 연구기관, 연금보험 관리공단, 단지관리를 담당하는 혼합경제회사(SAEM), 초중등학교, 그리고 각종 지원시설 및 주택단지 등이 대학, 연구소 등도 이들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이처럼 소피아 앙티폴리스에만 다국적 기업, 국제학교 등으로 인해 70여

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는 국제화된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클러스터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기업, 대학)에 혁신적인 R&D를 만들고 조직화 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과 연구기관을 창출하고 육성하며, 대학과 교육분야에 대한 혁신을 통해 고용을 증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현재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미래의 도시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00ha이고, 70만㎡에 달한다는 것도 이 도시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도시의 또 다른 특징은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의 역할이다. 기업 교육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방식을 취해 발전을 꾀했다. 또 기술 선도 기업가치와 집적,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파트너십 구축, 민간 및 공공단체의 역할과 네트워크 형성, 다국적 문화교류 환경과 시스템 구축등을 통해 유럽의 제1위의 테크노폴을 완성하게 됐다.

프랑스 니스=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랑스 니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입주한 통신업체 전경.

니스=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성공 열쇠는 고급인력 유치”

필립 마리아니 소피아 앙티폴리스 총괄 대표



“올해 설립 47주년을 맞는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혁신도시로 환경이나 기업, 대학들과 전세계의 전문가들이 교류와 혁신을 만들어 내고 있는 곳입니다”

소피아(Sophia) 앙티폴리스(antipolis) 필립 마리아니(Philippe MARIANI) 총괄 대표는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현재 아메 데우스 사스와 같이 110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한 대기업 등 다국적 기업 1500여개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3만6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유

럽 3대 지식기반 선도지역이다”며 “훌륭한 직업을 제공하고 그들의 가족들이 이 도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융합체다”고 밝혔다.

그는 이 도시의 성공요인에 대해 “우선 30년 이상 내다본 해안과 비압박한 공간개발 철학이 있었다”며 “지방분권과 분산정책, 인프라 개발 및 연구지원 등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건강, 교육, 문화, 스포츠를 통해 도시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배려한 점이 오늘날의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구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마리아니 총괄 대표는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매년 4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편리한 교통과 전기·통신시설과 훌륭한 보건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구도시로 자리매김 했다”고 밝혔다.

나주 혁신도시의 지향해야 될 점에 대해서 그는 “나주 혁신도시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조언을 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며 “다만 연구원 등 고급인력들에게 최고의 근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3만 6000여명이 근무하는 이 도시는 70% 정도가 단지 내 근무와 상관 없는 외부인으로 구성될 정도로 주변지역과의 유입·유출등 연계가 활발하다”고 고급 인력 유치에 혁신도시의 성공이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프랑스 니스=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취재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키칠라노 사무드소파 광주/전남 총판

이태리 가구 & 사무드소파

사무드소파는 대통령 차량에 사용, 천연가죽보다 강하고 천보다 부드러운 건강소파
커피를 부어도, 불펜을 그어도, 바로 회복되며 탈색, 끈적임, 진드기가 없는 첨단/건강소재 입니다

SINCE 1990
hong79.com
NAVER
홍스페이스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